

9/22(화) 시편 묵상 23

시편 84:5-12

이 시는 축제일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앞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거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 찬양했다면 오늘 말씀은 순례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

5절부터 시온을 향하여 출발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은 순례자들이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시온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쉽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도 있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눈물 골짜기’는 본래 원어에서 ‘바카 골짜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명 속에 ‘바카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초기 역본들(예, 70인역, 별게이트, 제롬 등등)은 이것을 ‘눈물’로 번역하게 되었고 한글 성경도 그 역본들의 번역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의 직역을 중심으로 번역한 NASB 성경에서는 이를 ‘바카 골짜기’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6v, “**Passing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spring; The early rain also covers it with blessings.**” 그 외, NIV와 RSV 성경에서도 ‘바카 골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실재한 곳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순례자들에게 그곳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습디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었고 이른 비가 있어 순례자들의 갈증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순례자들은 더 힘을 얻고 순례의 길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도 ‘순례자, 나그네, 또는 거류민’과 같은 정체성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벧전 2: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1628-88)을 읽어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순례자로 등장합니다. 그가 순례의 길을 완성하기까지 거칠고 좁은 길 그의 순례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다 그의 손에 든 책(성경)이 안내자가 되고 때를 따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은 결국 순례의 길을 완성하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크리스찬’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가 메고 있던 무거운 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피 흘리며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크리스찬’이 보았을 때 그의 등에 있던 모든 짐이 풀리고 천사가 남루한 옷을 입었던 ‘크리스찬’에게 새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과 비와 같은 은혜의 축복과 힘을 통해 이 길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찬양

8절부터 이제 시인은 ‘주의 기쁨 부으신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8-9절). 그 ‘기쁨 부으신 자’를 ‘왕’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인은 자신의 ‘왕’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쁨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방패는 전쟁에서 방어용 무기로서 왕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10절에서 그의 신앙고백과 함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천 날’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날 즉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사는 ‘하루’가 더 값지며 귀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1-12절에서 성전 축제의 기쁨을 노래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사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데 보통 ‘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칭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순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례자와 일반 여행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순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진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해와 방패 되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복된 순례의 길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정후란시스<중국>, 채우리<미얀마>, 최아브람<파키스탄>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